

‘2030 생애 첫 차’ 트렌드 전환... 車 업계 고급화 바람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이틀만에 1000대 이상 계약
최고급트림 RS 선택 60% 훌쩍

르노삼성 ‘XM3’

사전계약 12일만에 8000대 돌파
최고급트림 RE시그니처 71%

국내 자동차 시장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트렌드가 감지되고 있는 것. 올해 출시된 신차의 출고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점이 이 같은 소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국내 출시를 알린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블레이저와 르노삼성의 XM3가 내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고급 사양을



트레일블레이저RS 모델



르노삼성 XM3.

선택한 소비자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 1월 16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 이후 이틀만에 1000대 이상의 사전계약을 달성했으며 그중 고급 사양을 추가한 최고급 트림인 RS의 선택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또 4륜 구동(AWD) 선택 비중도 30%를 넘어섰다.

르노삼성이 지난 9일 출시한 XM3은 사전계약 12일 만에 8000대를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개발한 TCe 260은 전체 계약 중 85.8%를 차지했다. 이 엔진은 신형 4기통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형태다. 또한 XM3의 고급 사양에 대한 선택 비중도 높다. 최고급 트림인 RE 시그니처를 선택한 고객이 71%로 압도적이다. RE 트림이 10.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2030세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젊은 소비자들은 생애 첫 차로 소형, 경차를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SUV와 중형 세단 등으로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도 한몫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XM3의 출고가가 1000만원대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고급 사양을 선택해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가격은 트레일블레이저는 1910만~2509만원, XM3는 1719만~

2532만원(개소세 인하 적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30세대가 생애 첫차로 경차나 소형차를 구매할 때 기능보다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최근에는 개성있는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을 적용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2030세대의 구매 성향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급화 바람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은 고객 주문프로그램(BTO) 방식을 적용해 트림별로 구분하는게 힘들지만 옵션 선택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GV80은 지난달까지 누적 계약 대수 2만1000대를 넘어섰다. 전체 계약 고객 중 82.3%가 4륜 구동(AWD)을, 53.2%가 22인치 휠·타이어를 선택했으며, 외장 컬러는 31.6%가 우유니 화이트, 24.4%가 비크 블랙을, 내장 디자인은 58.9%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II 사양을 선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로나에 문 닫은 하늘길... 베트남 등 외항사도 출혈

한국 입국금지·제한강화 109개국
韓 관광객 연간 400만 베트남 방문
지난달 16% ↓ 48개월만에 역성장

하늘길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외항사도 큰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외항사들은 한국으로 향하는 노선을 잠정 비운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을 주요 탑승객으로 삼던 외항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 국적 항공사는 지난 4년간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한국인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온 만큼, 그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10일 기준 7513명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도 109개국으로 확대됐다. 국적 항공사들은 물론 외항사도 한국으로 들어올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동남아·유럽 등 지역을 가



베트남 국적 항공사 비엠펙항공 항공기.

/비엠펙항공

리지 않고 대부분의 외항사가 한국으로의 잠정적인 비운항을 선언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외항사 가운데에서도 특히 베트남 국적 항공사에 치명적일 것이라 업계 중론이다. 최근까지 한국에 취항했던 베트남 국적 항공사는 뱀부항공, 베트남항공, 비엠펙 등 3개다. 뱀부항공은 인천발 하노이, 나트랑, 다낭 노선을 운항 중이었고, 베트남항공은 여기에 더해 호치민 노선까지 총 4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 비엠펙항공도 인천에서 ▲나트랑 ▲다낭 ▲호치민 ▲푸꾸옥 ▲달랏 등 지역을 오갔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와 호치민 공

항 착륙을 금지하며 한국과 베트남 간 하늘길이 끊겼다. 현재 국적 항공사는 물론 베트남 항공사 모두 기존 노선을 비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항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기준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 400만명 이상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속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유지하던 내국인의 베트남 출국 수요는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최근 베트남으로 향한 한국인은 지난해 ▲11월 36만4260명(24.1%) ▲12월 42만4736명(30.9%)에 이어, 올해 1월

46만8423명(20.4%)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2월 32만1967명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38만3205명)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2.3%의 감소세를 보였던 2016년 2월 이후 48개월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항사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이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서 온다”며 “그런데 지금 베트남의 제재 수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좀 강하다. 그래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항공시장의 전체 아웃바운드 수요도 두 자릿수로 역성장하기 시작해 그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내국인의 전체 출국수요는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8.3% ▲11월 -9.0% ▲12월 -6.1%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1월 251만명을 기록하며 13.7% 감소했다.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벤츠 E-클래스 구매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행어·폴딩테이블 2종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E 클래스 세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더클래스 효성 공식 전시장에서 실시된다.

프로모션 기간 내 E 클래스 세단 모델(E 450 4MATIC EXCLUSIVE 제외)을 구매할 모든 고객에게는 벤츠 차량용 액세서리 중 베스트 셀링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코트 행어와 폴딩 테이블 2종이 제공된다.

차량 뒷좌석에 설치할 수 있게 제작된 코트 행어와 폴딩 테이블은 실내를 한층 더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어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아이템이다.

이번 프로모션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으로 문의 또는 방문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기업 신북방국가 진출 지원 강화

코트라·북방경제협력위원회
비즈니스 데스크 확대 개편

KOTRA(코트라)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로 확대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신북방국가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 영곡동 코트라 본사 1층에 위치한 신남

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는 올해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이해 우리 기업의 신북방 진출 창구가 될 예정이다.

우선 북방경제협력정보포털을 이용해 현지 시장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무역관과 협력해 무역·투자, 인증 등 분야별 상담을 진행한다. 러시아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울란바토르에 운영 중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애로사항도 파



서울 영곡동 KOTRA 본사 1층에 위치한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악해 정부 부처에 공유하는 등 적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확대 개편을 바탕으로 신북방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